



姜 信 默
 (새생각회 會長)

發明위에 發明있다

約 1百年前 美國의 特許局長이 辭任할 때
 “앞으로 發明되어야 할 것이 거의 없어져가고 있다. 새로운 發明이 매우 적어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眞實로 可能한 것은 이미

모두 發明되었으므로, 可能한 것은 이미 모두 發明되었으므로, 特許廳은 이제 문을 닫아야 한다.”고 辭職을 決心한 理由를 말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기를 합친 것만한 科學的인 進歩가 이룩되었다. 電燈·飛行機·라디오·TV·映畫·自動車·原子爐·宇宙船·컴퓨터 등 극히 적은 數의 예를 들 수 밖에 없으나, 모두 그 後의 發明品들이다.

“오늘날 重要한 發明은 이미 다 되었다.”
 고 말한 것은 틀렸다는 것은 그 뒤 1年을 넘기지 않고 證明되었다. 즉, 科學分野에 있어 새로운 發見·發明이 끊임없이 發表되고 있으니 말이다.

發明은 단 한 사람의 天才가 해낸 것은 거의 없다. 언제나 發明의 功을 세울 수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에게 앞서 다른 많은 사람이 모아놓은 知識을 土臺로 하여 그 일을 한 것이다.

에디슨은 다른 사람이 이미 눈과 빛과 電氣의 研究를 하여 그것에 關한 知識의 報告를 에디슨에게 提提供하여 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機械도 電燈도 發明하지 못했을 것이다.

에디슨은 책을 읽고 科學的 報告를 研究하여 先人들이 發見한 事實을 배웠다. 그래서 그는 그와 똑같은 것을 再發見할 必要가 없었고, 그것을 利用해서 그 自身의 새로운 發明을 하고자 더욱 精進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例가 아니고 많은 例中的 하나밖에 안된다. 그리고 科學의 世界에서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것의 典型的인 例이다.

모든 國家와 모든 主義의 사람들이, 世界의 知識의 倉庫에 더욱 무엇인가를 더하기 위하여 各者가 여러가지 方法으로 애써 研究하였다.

이 廣大한 知識의 倉庫는 書籍의 形態로 우리들 모두가 손에 넣을 수 있고, 장차 여러 해 동안에 더욱 더 새로운 發見과 科學의 새로운 驚異的 業績을 向해서 우리들이 前進 또 前進할 수 있는 길을 可能하게 하고 있다.

知識은 바로 눈앞에 있다. 그것은 읽기 위한 것이다. 많은 冊에서 知識을 얻어, 그 知識을 새로운 偉大한 發見과 發明의 水準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로 삼자. <※>

한 국 발 명 특 허 협 회 신 간 안 내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
 —발명의 발상기법 중심—
 규격: 국관 240면
 가격: 3,000원

—발명의 발상기법 총망라—
 발명인의 길
 규격: 국관 200면
 가격: 2,000원

—발명 특허 실시 가이드—
 발명인의 세계
 규격: 국관 200면
 가격: 2,500원

판매처: 한국발명특허협회 자료판매센터 (전화: 551-5571~2)